

구석기 시대 생활상 사냥과 채집으로 살았던 구석기 사 람들



쪼개로 뼈를 깨는 구석기 시대 사람 모습
/ 인천광역시검단산사박물관 /

1 개요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긴 시대인 구석기 시대는 약 400만 년 동안 지속되었고, 인류도 지금과 달랐던 당시 기후와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였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깨뜨려 만든 연모인 뿔석기를 제작하여 사용했으며, 불을 이용하여 생활하였다. 식물성 식량의 채집뿐만 아니라 사냥을 통해 동물성 식량을 섭취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들판에 막집을 짓거나 동굴 또는 바위 그늘에서 거주하였지만, 한곳에 정착하여 오랫동안 살지 않고, 마치 유목민처럼 먹거리를 찾기 위해 계절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 생활을 하였다.

2 구석기 시대의 시간적 위치와 환경

구석기 시대는 약 400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까지의 시기로, 전체 인류 역사의 99.7%에 해당한다. 그 이후 신석기·청동기·철기 시대와 현대까지의 역사는 불과 0.3% 밖에 되지 않는다. 구석기 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4기 갯신세(플라이스토세, 약 260만 년 ~ 1만 년 전)는 흔히 말하는 빙하 시대로서, 빙기와 간빙기가 교대로 반복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보다 매우 추운 기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약 2만 5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 최성기에는 빙하의 증가로 현재의 해수면보다 100m 이상 내려가 있어, 한반도 서쪽 바다는 이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이 육지화 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1만 년 이후 홀로세에 들어와 다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었으며, 약 6,000년 전쯤 현재와 같은 해안선을 이루게 되었다.

3 구석기 시대의 인류들

아프리카에서는 약 700만 년 전부터 사헬란트로푸스(Sahelantropus), 오로린(Orrorin), 아르디피테쿠스(Ardipithecus) 등 인류의 먼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초기 인류(Hominid)가 등장하게 된다. 약 400만~200만 년 전 사이에 열대 사바나 지역에서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Australopithecus)는 두뇌 용량이 약 450~500cc 정도로 두발걸기가 가능하였고, 석기를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